일반 논문

온라인 공론장을 둘러싼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헤게모니 경쟁에 대한 분석*

김 성 수 **

미래학자들이 추측했던 것처럼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이며,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탈출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의 진보는, 정치 과정에 있어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공론장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때, 정치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요행위자인 정당과 시민사회운동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는 공히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공간을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보완 또는 참여의 진작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정치사회는 '참여민주주의'의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정당정치의 홍보와 동원의 수단으로서, 정치세력화를 확대 시켜나가며, 시민사회는 국가와 정치사회로부터 자율성과 독자성 그리고 사회운동의 자원동원적 측면에서, 저항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을 둘러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상반된 활용은, 결국 양진영의 헤게모니 경쟁을 통하여 정치사회현상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누가 헤게모니를 쟁취하느냐에 따라 보이지 않는 통제 혹은 무질서를 발생시킨다.

주제어 : 정치사회, 시민사회, 온라인 공론장, 전자민주주의, 정당, 시민사회운동, 정치 기회구조, 헤게모니

* 본 논문은 2006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HY-2006-G).

** 한양대학교

www.kci.go.kr

1. 서 론

미래학자들이 일찍이 예측했던 것처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의 눈부신 발전은 '정보화'라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고, 정보화를 인간 사회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으로 안착시켰다.[1] 첨단 정보통신기기들이 대량으로 보급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된 통신망은 정보통신 기기들의 자유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보통신의 발전에 힘입어, 상상으로나 꿈꾸었던 세계가 현실로 다가 왔으며, 그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대변혁을 야기했다. 정보의 개방성, 투명성, 공유성, 그리고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을 해체한 쌍방향성 등의 새로운 개념으로 무장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커뮤니케이션 장(場)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라는 새로운 정보교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를 매개로한 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이 이러한 변화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사회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치 영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수행했던 기기와 행태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기기와 행태에 의해서 발전적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기와 수단은 기존의 기기와 형태를 질적・양적 모든 차원에서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정보화 물결을 만들어 냈다. 정치 영역에서는 이 변화의 물결로 인해, 정치 과정 그 자체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곧 새

1) 정보통신기술의 혁명과 그에 따르는 대변혁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예견되어 왔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변화를 인류의 일상생활에 대한 미래의 침투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미래 충격(future shock)'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적응을 강조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1970, 80년대에 이미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인류가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명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Toffler 1971, 1980).

www.kci.go.kr

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철저하게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이며,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탈출을 가능케 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지닌 인터넷의 발전은 정치 과정에 있어 정치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다.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토론과 정책에 대한 즉시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새로운 통로를 활짝 열어 주었다. 그것은 분명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치적 잠재가능성의 발현이었다.[2)]

정치 과정의 현실적인 변화는 정치학 영역에도 새로운 화두를 던져 주었다. 즉 "정보화 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의 확산은 과연 민주주의에 있어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그 같은 변화의 물결은 과연 가까운 미래에 현재와 분명한 질적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새로운 학문적 과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의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김성수 2006, 99-101). 이 같은 일련의 논의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변화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정치 행태 및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느냐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본 논문도 다음 두 가지의 상호 연관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들이 기술 발전에 의해 야기된 사회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정보통신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검증된 데이터나 경험적 이론의 토대 없이 단순히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는 예언적 성격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보통신의 발전이 미칠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

2) 정치 과정에 있어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용은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며, 보다 진보된 형태의 정치적 토론을 가능케 하고, 정책결정 영역에 있어 대중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Hague and Loader 1999, 8).

www.kci.go.kr

다. 사회 변화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체계화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 특히 비판적 시각의 연구와 이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번째는 정보화 사회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가 갖는 일련의 가능성들을 검토한 다음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일련의 이론적 논의들을 거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공론장의 활용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요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적 갈등관계를 헤게모니 쟁탈이라는 틀로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증적 예와 함께 전자민주주의 발전된 형태로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겠다.

2. 분석틀

인터넷과 정치를 연관짓는 기존 연구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미래에 대한 예측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함으로써 현재 사실을 과장하는 오류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통신망으로 연결될 인터넷 상의 공간은 기존의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가 일어난다. 무엇보다 대면(對面)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교류가 일어나며, 지금까지의 인간 간 교류 방식과 달리 탈공간성과 탈시간성 속에 더하여 탈인격성과 탈형식성의 속성을 겸비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구조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회적 행위양상들을 창출해 낸다(장용근 2004, 187).

실제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의 사례들은 초기의 기

www.kci.go.kr

술결정론적인 낙관론자들이 예측하였던 것과는 달리 인터넷을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지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여러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은 기술결정론적인 가정을 통하여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변동과 기술의 관계를 결정론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설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기술 결정론은 기술을 사회적 산물로 보지 않고 자기 발생적·자기 독립적·자기 결정적·자기 영속적인 힘을 지닌 존재로서 제시하기 때문에, 기술을 지나치게 신비화하여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며 동원만 강조하는 위험성이 있다. 둘째, 기술적 진보를 필연적이며 불가역적인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기술의 발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유보하고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하기도 한다. 셋째, 전자 매체와 같은 특정 기술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기본적 사회유형을 창출한다는 가정을 제시함으로써, 독특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무시할 수 있다(권기헌 외 1988, 84-85). 결론적으로 이 같은 시각의 문제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환경과 조건을 단순히 인터넷 기술로 대체해버리고, 사회 변혁에 있어서 정치적 실천이 가지는 힘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개방성과 쌍방향성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은 탈집중화 된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인터넷은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즉 디지털 사회는 인터넷과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세계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게 되고, 다수인 국민(시민단체나 네티즌 포함)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소수 권력지배자인 국가나 매스미디어를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국민주권을 보유한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동훈 2006, 707).

분명 인터넷을 국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 영역의 상징

www.kci.go.kr

처럼 여겨져 왔던 낙관론자들의 견해와는 다른 현상들이다. 분명 정보통신의 발전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졌고, 정보화로 인해 절차나 효용성도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절차상의 용이성과 효용성이 민주적 절차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장용근 2004, 204).

또한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거대 자본의 투자가 집중되고, 이윤확보를 위한 서비스의 유료화가 점차 확대 되면서, 오히려 집중화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이 공론영역을 내부적으로 세분화시켜 정치 또는 시민사회의 공통된 관심사를 표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 오히려 장애가 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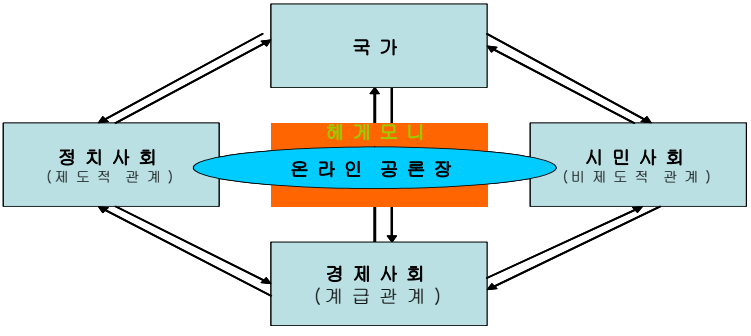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정치 구조의 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인프라 혹은 그 기능이 새로운 정치 구조의 형성을 보장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이 현실 정치 속에서 실제적으로 수용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전자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러한 기술의 적용 및 이용과 관련된 제도화의 수준 혹은 정치문화 등의 요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황의서 2000, 301-302).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학문적 접근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인터넷의 가공할만한 파급력 등이 일으키는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학계의 연구가 시기적절하게 따라잡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 학계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도 분석에서의 어려운 점이라도 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에 비하여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다.

www.kci.go.kr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터넷을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온라인 공론장을[3] 활용한 정치참여가[4] 어떠한 영향을 불러오는지를, 정당으로서의 정치사회와[5]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사회[6] 간의 헤게모니[7] 쟁탈전이라는 주요행위자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표 1〉 온라인 공론장을 통한 헤게모니 쟁탈전



3) 온라인 공론장은 협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실현에 장해가 될 수 있는 심리적·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공론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게 한다(Witschge 2004).

4) 이를 인터넷 매개 정치(Internet-Mediated Politics)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정치사회는 그람시(Gramsci) 가 주장하는 시민사회와는 대칭되는, 대중을 순응시킬 수 있는 억압적 강권기제나 이를 수단으로 통치하는 영역(Gramsci 1982)과, 토크빌이 주장하는 사회집단의 자율성과 이들 간의 갈등의 표출이 보장되고 집합적 선택의 토론이 가능한 영역(Cohen and Arato 1992, 19, 37-39)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관계성에서 본 논문에서의 정치사회는 국가와 일반대중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인 정당을 정치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정의한다.

6)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이자 영역인 시민사회는 개인과 가족을 국가와 정치에 연결시켜주는 매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Cohen & Rogers 1995, 24). 본 연구에서는 헤게모니 경쟁을 보다 선명하기 부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를 행위자로서의 국가와 대립되는 시민사회운동으로 설정하였다.

7) 헤게모니는 한 계급이 단지 힘의 위력으로써만이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의 조직망 속에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다(Gramsci 1982). 본 논문에서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에 의한 정치사회를 강화유지 해주는 형태로서의 유형과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에 대항하는 유형으로서의 헤게모니를 정의한다.

www.kci.go.kr

정보통신의 발전과 정치과정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사회적 입장은 차이를 보인다. 정치사회는 온라인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성을[8] 극복 할 수 있는 보완 또는 '참여민주주의'의[9] 진작으로써, 정당정치의 홍보와 동원의 수단으로써, 정치세력화를 확대 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온라인을 국가와 정치사회로부터 자율성과 독자성을 고수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시민사회운동의 자원동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공론장에 대해서 이처럼 기본적으로 상이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공론장에 대한 개념은 하버마스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개념이다. 하버마스가 설정하였던 공론장의 개념은 논쟁의 장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그들 스스로에 의해 -비판가능한 타당성 주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검열되는 민주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19세기 말 이후 국가의 개입주의 정책과 특수이해관계 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공론권이 다시 봉권화 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공론권의 영역이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 오히려 여론을 조작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론권에 대한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강상현 2000, 15).

이러한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인식적 차이점은 전략적 차이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 전자민주주의의 등장과 함께 양진영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

---

8) 루소(Rousseau)는 자신의 저서인 *The Social Contract* 의 book 3, chap. 15 에서 개인과 대중의 의지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음을 바탕으로 대의제의 논리적 불가능성에 대하여 주장하였다(Rousseau 1992, 266-267). 선거와 정당이라는 표준화된 기제를 통해 발전된 대의 민주주의는 결국 엘리트주의적 성향으로 발전함으로써 "주권자인 시민들을 통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조영재 2006, 157).

9) 정치적 대표와 유권자 간의 권한 위임과 책임성에 기반을 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참여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Pateman 1970, chap1).

www.kci.go.kr

다. 즉, 본 논문이 가설은 양진영 간에 온라인 공론장을 통한 헤게모니 쟁탈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정치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쟁점과 전망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은 기술결정론에서 비롯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퍼스널미디어의 혁명은 전통적으로 국가와 매스미디어가 전자감시(electronic panotican)의 주체가 되어 국민을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불평등한 삼각관계에서 상호 쌍방 감시하는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이다(이동훈 2006, 66-67). 상호 작용성을 내재한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활용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 형태의 정치체제를 완전하게 소멸시킬 것이라는 토플러와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의 주장이 대표적인 예이다(Toffler 1980, 429; Naisbitt 1982, 160). 이러한 기술결정론과 미래주의(futurism)의 결합은 인터넷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보다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 둘의 결합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정치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보다 풍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적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긍정적 관점의 논의들은 대부분 인터넷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며, 특정 단일정부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정보혁명은 민주주의와 상호 간 지렛대 역할을 하며 양립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이 1970년대~1980대년에 일었던 “제3의 물결”에 버금가는 새로운 민주화의 물결

www.kci.go.kr

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불러일으켜 확산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Ferdinand 2000, 1-2). 세계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있어 전 세계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인터넷은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기술(democratizing technology)임에는 틀림없다.

인터넷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이미 인터넷이 비민주주의 체제에 치명적인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관련자들이 동의한다(Kalathil et al. 2003). 실제, 낙관론자의 주장대로 비민주주의 체제들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에 있어, 인터넷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인터넷의 적극적인 활성화 전략은 딜레마와 같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인터넷의 적극적 활성화는 곧 비민주주의 체제의 권력유지에 안보적 불안을 초래하지만, 반대로 경제성장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증가와 의존은 경제적 자유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화 역시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권위주의 정권과 독재 정권은 경제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한 인터넷으로 인해 외부세계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뉴스에 노출되게 되었고, 이는 곧 정보왜곡과 통제에 의존해 오던 비민주적인 정권의 신뢰성을 붕괴시키면서 정권안보에 위협을 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은 독재자들에게 분명 실존하는 최악의 악몽으로서, 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딜레마(dictator's dilemma)가 되었음에 틀림없다(Kedzie 1997).

이처럼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낙관론은 한발 더 나아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는 장밋빛 예견으로까지 이어졌다. 즉 인터넷은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성을 급격히 증가시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Williams 1982, 183-199). 뿐만

www.kci.go.kr

아니라 물리적 시공간을 응축시켜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나 사회계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피력할 수 있게 해주는 해방의 매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갖는 장점만을 부각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지나친 과장만을 반복함으로써 현실 감각을 상실하는 잘못이 있다.

실제로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일변도의 현재적 상황은, 규범론이 이론적 경험론을 압도하는 상황 속에 존재하는 신화(myth)적 상태로 규정해도 충분할 정도이다(Kalathi et al. 2003). 즉,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인터넷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확한 가정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친화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터넷에 내재된 비민주적인 요소나 행태를 의식적으로 외면해온 경향이 없지 않다. 실제로 인터넷이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창조해내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보다 확장시킬 것(Mosco 1989)이라는 식의 막연한 가정은 분명 이론과 사례가 연계된 철저한 분석으로부터 뒷받침되는 엄연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사회적 통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Kalathil et al. 2003). 이처럼 현실적인 가능성들로만 포장된 현란한 수사(修辭) 속에서 동시혁명(coincident revolution)적인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버전의 새로운 민주주의 신화가 자연스럽게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Kedzie 1997).

물론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은 분명 비위계적인 구조와 상호 작용성, 세계적 차원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통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회복력 등과 같은 강력한 민주주의적 잠재력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력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민들의 감시기능과 참여기능(Barber 1984), 그리고 문화기능 등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실제 앞서 살펴본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독재자의 딜

www.kci.go.kr

레마 외에도 우리는 중국의 파룬궁 사태나 멕시코 남부의 치아파스(Chiapas) 봉기 등의 사례에서처럼, 인터넷의 민주주의적인 잠재력이 가시화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그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해방구로 인식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 그 자체로서는 가치 가치중립적인 기술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가 인터넷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통제도구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례로 우리는 특정한 경향의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이해와 자본주의 수단을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글로벌 헤게모니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거대 프로젝트의 음모에 의해, 인터넷이 가진 비민주주의적 위협을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이 독재자에게 딜레마를 안긴 것과 같이, 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딜레마(democrat's dilemma)를 안겨줄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과 민주주의 사이의 상호작용은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터넷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에 많이 논의되어 왔던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Lyon 2003, 67).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민주주의의

www.kci.go.kr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단선론적이고 일방적인 보편주의적 가정(Ronfeldf 1992)으로부터 벗어나, 단순히 인터넷을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는 국가와 시장의 탄력적 반응까지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분석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일찍이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회의를 품고 있던 일군의 학자들은 인터넷의 확산이 미칠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격차 확대, 정보의 상업화, 그리고 통제기술의 발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실제로 간디(Oscar H. Gandy)는 자동화된 고도의 감시기술의 발전 때문에 시민권의 확장보다는 정치권의 관료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Gandy 1989, 61-76). 간디에 의하면, 감시기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예전과 다른 뛰어난 기능이 가능해짐으로써 감시 대상에 대한 훨씬 폭넓고 정교한 감시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관찰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어떻게 실행되는지도 모르는 고도의 원격감지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댄징거(James Danziger) 역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엘리트 집단의 시각을 장기간 조사한 결과, 전자자동화기술은 정치적 민주주의보다는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전략화 시키는 '강화정치(reinforcement politics)'의 수단이라고 결론을 내린다(Danziger 1982). 이와 유사한 논의는 일찍이 도이치(Karl Deutsch)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도이치는 정보 및 통신 채널의 통제가 군대나 경찰과 같은 전통적인 힘을 대신해서 새로운 권력의 수단으로 대두될 것을 예견하였다(Deutsch 1963). 인터넷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같은 도이치의 전망은 오늘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관적인 입장의 학자들은 미디어를 통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이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쌍방향 케이블TV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일찍부터 전개한 폴(I. Pool)은 전자미디어에 의존한 정치적 의견의 수렴은 오히려 정책결정과정을 복잡하게 만들며, 과다한 시

www.kci.go.kr

간과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정책 추진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Pool 1973). 물론 전자적 참여행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 환경의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상세히 이해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인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습관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할 우려가 높다. 더욱이 권위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정치인들이 전자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음모도 배제할 수 없다(Kellner 1990).

정보의 상업화 현상 역시 인터넷과 민주주의 상호 간의 긍정적 발전의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정보의 상업화 경향은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간격을 더욱 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트(Benjamin J. Bates)는 정보재를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공공재의 속성으로 파악하면서도 효율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정보재의 특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Bates 1988).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경우 어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보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의사결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정보재를 소비할 때와 두 사람이 정보재를 소비할 때의 효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기존의 공공재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오히려 정보 효용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될 경우에는 정보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4. 온라인 공론장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

최근에는 인터넷과 정치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호 간의

www.kci.go.kr

연관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 정당, 그리고 정부 등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홈페이지와 메신저,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매체 등과 같이 늘 새로운 형태로 끊임없이 개발되는 새로운 도구들, 그리고 인터넷에 기반한 정치 참여와 현실 정치과정 사이를 연결하는 많은 연결고리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과 정치 사이의 연관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적 사례가 앞에서 논의한 전자민주주의의 어느 한 유형에 알맞은 특징적 측면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기반한 정치참여의 외연적 확장이 실체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외연적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연적 심화가 병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만족할 만 하지도 않고, 균형적이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괄목할 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현대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인터넷에 기반한 정치참여라는 변형된 정치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를 점차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의 민주주의가 전자민주주의를 수렴하면서 그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치유해 나가는 전환기적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직은 전자민주주의의 미래를 분명하게 점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전환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문제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보다 순조로운 형태로 진행하여,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화할 수 있어야만 한다(Przeworski 1991).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보다 분명한 전망을 위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www.kci.go.kr

정치참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 논의의 초점을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 상호 작용의 변화라는 거시적 국면에 맞추고, 이를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 행위자 중심의 집약된 형태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사실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통해 보다 심화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경제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각각의 주체들이 모두 독자적인 영역과 상호 독립적인 헤게모니를 확보한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정화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을 때만이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 모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군부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나타났던 이 주체들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과거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강압적인 지배를 이용하여 정치적 통제(political control)를 가하는 강력한 권력의 존재로 인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었다. 이 시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는 매우 미약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나마 대부분이 국가에 종속된 어용 단체였다. 특히 국가가 강압(coercion)에 기초한 지배(domination)가 아닌 국민적 동의(consent)를 이용한 헤게모니의 장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정치사회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경제사회, 그리고 국가의 관계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이루었다. 비록 상대적인 비중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세련된 형태로 균형을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강제적으로 축소 및 압살되어 있던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서로 다른 형태의 정

www.kci.go.kr

치체제의 확보를 위하여 헤게모니 쟁탈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질적·양적 팽창을 이룩하면서 급격하게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민주화 이행기에 있어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는 정제되지 않은 갈등과 대립의 표면화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역시 새로운 정치적 지형 속에서 보다 확장된 헤게모니를 쟁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충돌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변형된 정치적 지형은 사이버 공간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로 인해 또다시 지각 변동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에 기반한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는 모두 새로운 행동 영역에서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확보할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헤게모니 쟁탈은 상당히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에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시민사회에 비해 정치사회가 월등하게 풍부한 가용자원을 갖춘 탄탄한 조직(organization)을[10] 자랑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사회가 시민사회보다 매우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들을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0) 감정적 또는 물리적 권위에 의한 복종이나 보상적 차원에서의 복종과는 달리 권위, 보상, 그리고 믿음 즉 모든 것을 결합한 형태로서의 조직(기업, 정당, 교회 등)은 더욱 강력한 힘의 우위를 갖는다(Galbraith 1983, 14-30).

www.kci.go.kr

1) 정치사회에 의한 헤게모니 장악

먼저 정치사회는 자신들의 탄탄한 조직 구조를 통해,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지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을 충원한다(Gramsci 1982, 5). 이때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엘리트 스와핑이나 시민사회에서 정치사회로의 수직적인 승진 행태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이 운용되기도 한다. 특정 계급과 연계되어 있는 인물이나 언론계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인물들 역시 충원의 대상이 된다.[11] 이러한 충원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지적 능력에 기반 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가진 여론동원에의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와 정치사회로의 진입을 통해 지배세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엘리트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12]

정치사회는 이렇게 충원된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풍부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도록 지시한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들로 무장한 소수의 지적 엘리트들은 오피니언 리더라는 미명 아래, 정치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정당화의 논리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즉 이들은 지적 리더십과 조직의 우위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획득하

---

11) 언론과 언론인들은 상식과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지형을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Gramsci 1985, 405). 따라서 정치사회는 이러한 언론계를 자신들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동시에, 이러한 언론계에서 활약했던 소수의 지적 엘리트들을 자신들의 제도권 내로 충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변형시키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몇몇 지배언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대안언론으로까지 정치사회의 충원 시도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이들 인터넷 언론과 같은 대안언론들이 가지는 영향력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12) 존 듀이(John Dewey)는 슘페터(Shumpeter)나 다운스(Downs)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민주적 절차는 단지 경쟁공개시장(competitive open market)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결국 민주주의의 이상은 무너지고 귀족화된 지식층에 의하여 만들어진 독재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erchek and Conte 2001, 165-166).

www.kci.go.kr

기 위하여, 일련의 메시지와 정보 등으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의 콘텐츠 부문에 대한 장악에 나서는 것이다.[13] 그리고 이렇게 제조된 정당화의 논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적인 속성을 지닌 다수의 누리꾼들에게 급속하게 확산 및 전파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의 조직에 의해 동원된 누리꾼들 역시 익명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동일한 논리를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바람잡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종의 밴드 웨이건 효과(band wagon effect)를 창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비용, 그리고 의지 등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대중들은 소수의 지적 엘리트들에 의해 동원된 정당화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고, 나아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Kellner 1990). 이때 다수의 대중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위해 동원된 누리꾼들의 조작된 반응들을 통해 이러한 자신들의 무비판적 수용을 심리적으로 자위하게 되어 오히려 무비판적인 탈정치화 현상까지 보인다(박선희 2000, 77-78). 즉 자신이 수용한 특정 논리는 다수가 이미 수용하고 동의하고 있는 지극히 정당한 견해라는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이버 공간의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오랜 숙고를 거친 진지한 담론의 과정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

13) 이 과정에서 지적 리더십의 우위와 함께 도덕적 리더십의 우위가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화 운동 등에서의 활동상을 경력으로 지닌 특정 인물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인 우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소위 우리나라에서 386세대라고 불리는 특정 계층의 급격한 성장은 지적 리더십의 우위보다는 이러한 도덕적 리더십의 우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서는 이러한 지적 우위와 도덕적 우위에 더해, 대중적 이미지의 우위 역시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www.kci.go.kr

작된 여론몰이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관용의 정신에 기반 한 개방적 사고와 건전한 문제의식에 기반 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이를 종합한 합리적 사고보다는 단순히 다수의 대중적 지지를 통해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적 다수주의가 우선시 되는 것이다.[14)]

이러한 일련의 계획된 과정들을 통하여 정치사회는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정당화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즉 본래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던 정치사회는 여기에 소수의 지적 엘리트들을 활용한 정당화의 논리와 이를 통해 획득한 다수의 대중적 누리꾼들이라는 정당화의 지기기반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종합적인 정당화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대중적 누리꾼들의 지지는, 여러 가지 매개체들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의 지지로 전환될 수도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동원이 오프라인상에서의 동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된 정치사회의 헤게모니 장악 시도가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현실 공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적 지지를 확장하려는 기존 정당들의 전략적 움직임은 그 정당들이 수립하고 있는 'e-party' 또는 '전자민주주의정당' 전략들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위한 시도에서의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정치사회

14) 분명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인프라의 확충 속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는 참여의 폭이라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분명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는 참여의 깊이와 강도, 그리고 질이라는 측면에서 미성숙 혹은 미완성된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 속에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하나 개별화된 원자적 속성을 지닌 익명성의 다수들이 부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교한 논의과정을 통해 완성된 고급정보의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실제로 고립된 채로 존재하는 원자화된 다수들의 대부분은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를 가장한 정치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Abramson et al. 1988). 그리고 정치사회는 이러한 불완전한 상황과 시민사회의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www.kci.go.kr

의 침범은, 사이버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역행된 모습의 단순다수민주주의, 즉 변형된 참여민주주의 출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같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사회의 헤게모니적 침투 과정은 양자 간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과정 그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사실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수평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15] 갖춘 다원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분명 기존 엘리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부터 벗어난,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갖고자 하는 시민적인 희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를 사이버 공간 속에서 새롭게 재창조해 내고자 하는 발전적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사회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자신들

15) 자생적 질서의 개념은 하이에크(F. A. Hayek)가 인간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에 근거한 질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그에 의하면, 자생적 질서는 인간의 의도적 설계에 의해 파생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무지에 적응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즉 극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외부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공적 사례들만이 진화론적으로 선택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자생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 사회질서가 특정 개인이나 조직 혹은 정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질서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생적 질서는 특정 개인의 의도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제약 없이, 질서를 구성하는 자유로운 개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개인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정보들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생적 질서는 인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진보적 사회질서라고 할 수 있다(Hayek 1978; 1982, 32-54).

www.kci.go.kr

에 유리한 형태로 조작 가능한 또 하나의 도구로 변형시키기 위하여, 이를 헤게모니 차원에서 장악하고자 한다(Simon et al. 2002, 96-100). 이로 인해 인터넷이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통로는 제한되거나 폐쇄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강압적인 지배와 같은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동원된 단순다수주의를 이용해 확보한 국민적 합의라는 감추어진 통제를 통해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위협이 그 실체에 비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위협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수평적 영역에 하향식(top-down) 지시체계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동원된 질서와 통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게 내재화되어 있기에 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혼란도 종종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화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질서 부여 등을 시도하는 일련의 포장된 행위들 역시 이러한 정치사회의 헤게모니 장악 전략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16]

2) 시민사회에 의한 헤게모니 장악

이상의 과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경우, 즉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나가는 경우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시민사회 영역은 지배세력의

16) 물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한 현상적 시각에서 보면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신뢰 추락으로 인해 더 이상 과거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누리기 어렵게 되어 헤게모니는 정치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장악된 것이 아니라 점차 정치사회 내부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에 의해 분산되어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헤게모니 장악이라는 이분법적 분석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www.kci.go.kr

정치적 압박에 대항 헤게모니가 만들어 질수 있는 공간이다(Gramsci 1982; Sherman 1995, 9). 이 공간은 일반시민들에게 공론장의 영역으로 작동하여 "이것이 대중의 형태를 거치면서 보다 발전되면 국가와 기업체에 대항하는 형태를 나타나게"(김성수 2007, 53)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잠재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재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는 그것이 가지는 본래적 특성들로 인해, 시민사회 영역을 보다 깊고 넓게 확장시켜줄 수 있는 풍부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시민사회를 육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페루,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의 사례는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Simon et al. 2002, 58-59). 쿠바나 중국 같은 비민주적인 국가들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유 역시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경민 2003).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에 비해 시민들과 보다 친밀한 거리감과 유사한 동질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지니고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보편적인 촉진 요소만 있다면 정치과정에서 구조적 동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가 정치사회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사회 영역 안에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촉진 또는 방해하는 정치적 기회구조(McAdam et al. 1996, 26-27)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성격(Weber 1971, 1978)과 함께 초국가적인 사회운동조직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발전된 시민사회의 형태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으로 확장되어 시민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확장시키기도 한다(김성수 2007, 57).

성공적인 집단행동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정치기회 뿐만 아니라 과정

www.kci.go.kr

의 재단(framing process)이 주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McAdam et al. 1999, 16-17).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치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자치권력(empowerment)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와 정치사회의 책무성을 감시하고 제고할 수 있다(김성수 2007, 57-58).

시민사회운동의 성공은 얼마만큼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과정을 확보 또는 만들어 내느냐에 있다(Tarrow 2006, 71-72). 교육과 미디어의 발달은 시민사회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기회구조의 증가를 가지고 오게 되며 동시에 제도적 관계에서 배재된 엘리트 또는 제 3의 세력에게는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Tarrow 2006, 87-89; Meyer et al. 1998, 13). 하지만, 처음부터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시민사회운동은 조직화된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기존 언론영역(Margolis et al. 1989, 366)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대표적인 미디어 발달 사례 중의 하나인 온라인 공론장은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의견표출, 집단적 행동, 그리고 집단의 형성・운용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언론영역의 게이트키핑이 해체된 온라인은 시민사회운동의 전문화와 제도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여, 시민사회운동은 온라인 공론장을 적극 활용한 헤게모니 장악이 가능하게 된다.

지배세력의 수긍할 수 없는 요구와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일반시민이 제도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할 경우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은 논쟁적 또는 투쟁적으로 발전하게 된다(Tarrow 2006, 3). 따라서 시민사회가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의 효용성을 보다 공격적인 형태로 활용한다면, 시민사회가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대의 명분아래서 보다 강화된 지위와 역할을 구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정치사회 우위의 헤게모니 장악이 가지는 부정적인 단면들처럼, 시민사회 우위의 헤게모니 장악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여러

www.kci.go.kr

문제점들을 일으킨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질서와 통제의 부재로 인한 혼란 상태가 급격하게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다수의 무질서는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혼란스러운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제도적 안전장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위 참여의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참여를 통한 요구사항들이 시스템의 처리 능력 한계로 인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체제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정치폭력의 형태로[17]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정부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 활용으로 인해 보다 심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무제한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한 곳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무질서 상태 속에서 정치폭력이 수반되는 사이버 무질서 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각각의 독자적인 영역에서 상호 독립적인 헤게모니를 수립 및 유지하지 못한 채 하나에 의해 다른 하나가 잠식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환경 요인의 등장 속에서 적절한 헤게모니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5. 결 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회변화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17) 이는 자기중심적(self-centered)인 형태, 현실도피적(escaped-oriented)인 형태, 기회의 범죄(crimes of opportunity) 형태, 우발적인(uncommitted)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White 2002, 23).

www.kci.go.kr

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전자민주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온라인 공론장은 독립변수이기 보다는 전략적 매개 변수(Strategically Mediating Variable)로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사회는 온라인 공론장을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참여의 한계를 e-party나 전자민주주의 정당 등의 활용을 통한 보완으로 이해하면서 권력의 강화와 확대를 위한 전략을 구성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국가와 정치사회로부터의 자율성과 독자성의 유지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은 결론적으로 온라인 공론장에서 서로의 상반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18] 최근 들어서는 소극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거대 IT시장들을 선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역동적인 활약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는 분명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 이는 관념적인 가능성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라는 이론적 개념을 현실적인 실존의 영역으로 끌어내어 구체적인 실천적 개념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충분히 내재되어

18)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화 사회를 위한 매우 월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일례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가입자수는 38,342,323명,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12,190,711명으로 각각 평균 인구 10,000명 당 7,965.1명과 2,53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005. "전화보급률,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http://www.kosis.kr/ 검색일: 2007. 9. 20).

www.kci.go.kr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의 과정은 아직까지는 전환기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치가 기존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정치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추진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인터넷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양자의 관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터넷이 새로운 정치참여의 장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현재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에 대한 현실이 부정적이라고 하여 전자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그 자체를 폄하하거나 포기하는 것 역시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숙의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전자민주주의는 분명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보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전환기적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보다 많은 집중을 기울여야만 한다. 특히 그러한 노력들은 기존의 기술 중심적인 논의들과 제도적인 논의들, 나아가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적인 논의들까지를 아우를 수 있어야만 한다. 발상의 전환이나 의식의 변화와 같이 정치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보다 사려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을 정치 참여를 위한 온라인 공론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이론들의 한계점과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다.

우선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의 주된 행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과 정치인들 모두 올바른 프로슈머(prosumer)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www.kci.go.kr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실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체들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신자이자 송신자로서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정당들은 인터넷을 새로운 형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정당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치 결과나 정책 결과물 등에 대한 시민들과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략들을 실현하거나 시민사회에 대한 지시·통제를 시도하기 위한 일방적 수단으로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정당과 시민의 관계를 합리적 계산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단순하게 대치시켜 버리는 것이다(Downs 1957).

실제로 2008년 2월 11일 현재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국회의원 289명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조사해본 결과 26명만이 '정책토론방'을 운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9%정도만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9] 즉 인터넷상에서는 시민과 시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정치인에서 시민들에게로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커뮤니케이션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정치인과 시민 간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과 정치인 간의 수평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보편화되기는커녕, 아직 시민과 정치인 간의 수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조차도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 참여는 정치사회에 비해

19) 이 결과는 2000년 김춘식이 조사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김춘식 2000, 93).

www.kci.go.kr

가용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영역을 보다 확장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보다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일례로 지난 제16대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한 총선시민연대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참여의 폭을 확장하는 등의 결과물들을 창출해냈다(배성인 2000, 11; 신기현 2000, 175-176). 그 외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는 인테넷 매체의 저렴한 비용, 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전국적 선거 캠페인의 수단이라는 인터넷의 장점을 이용하여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이회창 후보에 대한 편향적 보도에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김성수 2004, 229-230, 232).

그 외로 일반대중은 인터넷을 공적영역의 공론장으로서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사적 영역에서 오락적이고 비정치적인 용도로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에 있어 시민들의 생산적인 정치활동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지적 판단력과 지적 생산력, 그리고 지적 분배력 등에 대한 시민들의 역량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정보 접근능력과 처리 및 이용능력, 그리고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시급하고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를 선도해야할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그 주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는 인터넷 매개 정치가 기존의 현실 정치와의 분명한 구분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여전히 불평등한 위치에서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대중화와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www.kci.go.kr

다음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 과정에 있어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담고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정치 관련 고급 정보보다는 단순 광고성 홍보나 익명성으로 인한 잡음 등과 같은 저급 데이터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매개 정치는 외적 부문과 내적 부문이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관련 사이트들의 급격한 증가나 웹사이트의 멀티미디어화 등과 같이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부문의 성장은 상당히 두드러져왔지만, 그러한 외적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해야 할 고급 정보의 증가와 정보 신뢰성의 향상 등과 같은 내적 부문의 질적 제고가 미비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는 근거 없는 동원적인 루머나 비방 등과 같은 인터넷 매개 정치의 크랙(crack)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을 폐쇄의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적 소유나 독점을 배제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일련의 정치참여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적 측면들을 살펴보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명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 매개 정치를 지탱하고 고무시킬 수 있을 만큼의 풍요로운 토양이 확보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공적 이슈들을 토론할 수 있는 건강한 공적영역을 일상생활 속에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토론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는 경향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 문화적 특성은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참여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인터넷 매개 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치참여 및 활동의 소극성,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다. 학연, 지연, 혈연 등에 기반을 둔 뿌리 깊은 연고주의가 인터넷에서도 확대되고 재생

www.kci.go.kr

산되는 경향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러한 연고주의는 정치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분산된 네트워크의 확산을 방해함으로써,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각기 다양한 악기들이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음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서 재창조해내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고조된 다원성이[20]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이를 다시 정제된 조화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강한 토대를 제공하는 공동체 민주주의가 전제하는 성숙한 시민 문화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시민들 간의 수평적인 정치적 대화와 숙의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대의 민주주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공론장은 충분히 자신의 몫을 수행해 낼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현 . 2000.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14(1). 7-40.

김성수. 2004. 『국민의 선택과 변화』. 서울: 역락.

김성수. 2006 “온라인 공론장의 출현과 민주주의 변화.” 『정보화 시대: 새로운 삶과 문화의 지평』. 2006년 한국사회학회 한국언론학회 특별공동학술회의.

김성수. 2007. “세계시민사회이론의 비교분석: 자유주의적, 맑스적, 구성주의적, 사회학적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2(1).

김춘식. 2000. “국회의원의 웹사이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

20) Abramson, Arterton and Orren(1988) 이 주장하는 ‘공동체 얼굴을 한 다원주의(pluralism with a communitarian face)’를 참조할것.

www.kci.go.kr

보』. 14(1). 73-111.
권기현, 박승관, 윤영민. 1998. 『정보의 신화, 개혁의 논리』. 서울: 나남.
고경민. 2003.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전략: 쿠바모델과 중국모델." 『중국연구』. 22. 71-105.
박용수. 2000. 『중국의 언론과 사회변동』. 서울: 나남.
박춘서. 2000. "시민운동과 대안언론: 한국적 대안언론 유형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44(3). 190-221.
박선희. 2000. "컴퓨터 매개 정치의 패러독스: 전자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언론학보』. 44(4). 61-101.
배성인. 2000. "시민단체 낙선운동 평가." 한국정치학회. 한국언론재단 공편. 『16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 서울: 한국정치학회. 177-196.
이동훈. 2006.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액세스권의 헌법적 함의." 『성균관법학』 18(1). 66-67.
장용근. 2004. "전자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헌법학연구』. 10(2). 186-188.
조영재. 2006. "전자 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 주성수・정상호 편.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황의서. 2000. "전자민주주의論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점에서." 『국민윤리연구』. 45. 301-302.
Abramson, Jeffrey B., Christopher Arterton F., and Gary R. Orren. 1988. *The Electronic Commonweal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rterton, F. Christopher. 1987. *Teledemocracy: Can Technology Protect Democracy?* London: Sage Publication Co.
Barber, Benjamin R.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ion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ates, Benjamin J. 1988. "Information as an Economic Good: Sources of Individual and Social Value." Vincent Mosco and Janet Wasko,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Becker, Ted, Crista Daryl Slanton. 2000. *The Future of Teledemocracy.* Westport,

www.kci.go.kr

C.T: Greenwood.

Beniger, J. 1987. "Personalization of Mass Media and the Growth of Pseudo-community." *Communication Research.* 14.

Browning, Graeme. 1996. *Electronic Democracy: Using the Internet to Influence Politics.* Wilton, CT: Online Inc.

Corrado, Anthony, Charles M. Firestone eds. 1996. *Elections in Cyberspace: Toward a New Era in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Carpini, M.X.D. 2000. "Gen.com: Youth, Civic Engagement, and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Political Communication.* 17(4). 341-349.

Calhoun, Craig. 1992. "Introduction: Habermas and Public Sphere." Craig Clhoun (ed.). *Habermas and Public Sphere.* MA: MIT Press.

Cohen, Jean L.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A: MIT Press.

Cohen, Joshua & Joel Rogers. 1995. *Secondary Associations and Democratic Governance: The Real Utopia Project*. London: Verso.

Dahl, Robert Alan. 1998. *On Democrac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김왕식 역. 1999. 『민주주의』. 서울: 동명사.

Dahl, Robert Alan.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ahlgren, Peter. 2001. "The Public Sphere and the Net." W. Lance Bennet and Robert M. Entman (eds.). *Mediated Politics: Communication in the Future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nziger, James. 1982. *Computer and Politics: High Technology in American Local Govern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avis, Richard. 1999. *The Web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eutsch, Karl. 1963. *The Nerves of Government: Model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ontrol.* New York: Free Press.

www.kci.go.kr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Etzioni, Amitai. 1993. *The Spirit of Communication: Rights, Responsibilities, and the Communication Agenda.* New York: Crown Publishers.

Ferdinand, Peter. 2000. "The Internet,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in Peter Ferdinand (ed.). *The Internet,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Portland,* Oregon: Frank Gass Publishers.

Fisher, Bonnie, Michael Margolis, and David Resnick. 1994. "A New Way of Talking Politics: Democracy on the Internet."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n New York City. September 1-4, 1994.

Gandy, Oscar H. 1989. "The Surveillance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reaucratic Social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39(3).

Galbraith, John Kenneth. 1983. *The Anatomy of Power.*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Gramsci, Antonio. 1982.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Gramsci, Antonio. 1985. *Selections from Cultural Writing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Grossman, Lawrence K. 1995. *The Electronic Republic: Reshaping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Viking.

Hague, Barry N., Brian D. Loader. 1999. *D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Harasim, Linda M.. 1993. "Networlds: Network as Social Peace." Linda M. Harasim (ed.). *Global Network: Computers and Interactional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P Press.

Hayek, F. A. 1978.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yek, F. A. 1982. *Law, Legislation and Liberty.* London: Routledge.

www.kci.go.kr

Jakubowicz, Carol. 1993. "Musical Chairs? The Three Public Spheres in Poland." Peter Dahlgren and Colin Sparks.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Journalism and the Public Sphere.* London: Routledge.

Kalathi, Shanthi & Taylor C. Boas. 2003. *Open Networks, Closed Regim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Kedzie, Christopher R. 1997. *Communication and Democracy: Coincident Revolutions and the Emergent Dictator's Dilemma.* Santa Monica. CA: RAND.

Kellner, Douglas. 1990. *Television and the Crisis of Democracy.* Boulder: Westview Press.

Luke, Timonthy W. 1998. "The Politics of Digital Inequality: Access, Capability and Distribution in Cyberspace," Chris Toulouse and Timothy W. Luke (eds.). *The Politics of Cyberspa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Lyon, David. 2003. "Cyberspace, Surveillance, and Social Control: The Hidden Face of the Internet in Asia." in K. C. Ho, Randolph Kluver & Kenneth C. C. Yang (eds.). *Asia.com: Asia Encounter the Internet.* London & New York: Routledge.

Margolis, Michael and Gary Mauser (eds.). 1989. *Manipulating Public Opinion: Essays on Public Opinion as a Dependent Variable.* Pacific Grove: Brooks.

McAdam, Doug, Sidney Tarrow, and Charles Tilly. 1996. "To Map Contentious Politics." *Mobilization 1.*

McAdam, Doug, John McCarthy, and Mayer Zald. 1999.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Grath, Joseph E.. 1991. "Time, Interaction, and Performance(TIP): A Theory of Groups." *Small Group Research,* Vol. 22.

Meyer, David S. and Sidney Tarrow, 1998. "A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Social Movement Societ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www.kci.go.kr

Mosco, Vincent. 1989. *The Pay-Per Society: Computers and Communication in the information Age.* Norwood, NJ: Ablex.

Mosco, Vincent. 1996.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김지운 역. 1998.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서울: 나남.

Naisbitt, John. 1982. *Megatrend*. New York: Warner Books.

Negroponte, Nicholas. 1995. *Being Digital.* New York: Vintage.

Olson, Mancur. 18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ol, Solo. 1973. *Talking Back: Citizen Feedback and Cable Technology*. Cambridge: MIT Press.

Poster, Mark. 1995. *The Second Media Age.* Cambridge: Polity Press.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New York: HaperCollins.

Ronfeldt, David. 1991. *Cyberocracy, Cyberspace, and Cyberology: Political Effects of the Information Revolution.* Santa Monica: Rand Cooperation.

Ronfeldt, David. 1992. "Cyberocracy is Coming." *The Information Society,* 8(4).

Rousseau, Jean Jacques. 1992.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by G.D.H. Cole. London: J.M. Dent Ltd.

Sherman, Howard J. 1995. *Reinventing Marx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imon, Leslie David, Javier Corrales, and Donald R. Wolfensberger. 2002. *Democracy and the Internet: Allies or Adversar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ww.kci.go.kr

Smith, Jackie. 2002. *Globalization and Resistance: Transnational Dimensions of Social Movement.* Lanham, MA: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Tarrow, Sidney. 2006.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erchek, Ronald and Thomas Conte (eds). 2001. *Theories of Democrac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Toffler, Alvin. 1971. *Future Shock.* New York: Bantam.

Toffler, Alvin. 1980. *The Third Wave.* New York: William Morrow.

Weber, Max. 1971.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ndon: Allen and Unwin.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Vol.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hite, Jonathan R. 2002. *Terrorism: An Introduction.* 3rd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Williams, Frederick. 1982.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Beverly Hills: Sage.

Witschge, T. 2004. "Online Deliberation: Possibilities of the Internet for Deliberative Democracy." *Democracy Online.* New York: Routledge.

www.kci.go.kr

Abstract

Hegemony Competitions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Movements over the On-line Public Opinion Sphere

Sung-Soo Kim

As the futurologists have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internet have enormous influences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general citizens in the political proces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oretically the effects of the use of internet as an online public opinion sphere, from the point of a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movements, respectively the main actor of political and civil society. Both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are making use of the online public sphere on the web to overcome the limits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o facilitate political participation. While political society utilizes the internet as a means of public relations of party politics or public mobilization to expand political power in the name of promo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civil society exploits it as a means of 'direct democracy' to get its autonomy from the state and political society to mobilize its own resources. This conflicting use of the internet by political society and civil society causes competitions for hegemony over the online public opinion sphere between the two and has significant influences upon the overall political and social phenomena. Thus, who takes the hegemony may result in invisible control or public disorder.

www.kci.go.kr

Key words: political society, civil society, online public opinion sphere, electronic democracy, political party, civil society movement,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hegemony

www.kci.go.kr